



종합전파감시망 구축 운용

— 현대화된 전파관리체계의 시작

1997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을 세우고 구축을 진행한 종합전파 감시망이 1997년 4월 30일 완성 되었다. 종합전파감시망은 무선 국의 분포가 많은 지역에 무인국 소를 설치하고, 중심국과 단말국 에서 원격 제어함으로써 급증하는

무선통신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종합전파감시망의 구축으로 현대화된 전파관리시대가 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 다양한 첨단 전파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전파지킴이 ‘CS기동팀’ 발족

— 국민을 위한 전파민원 서비스의 본격화

1999



이동방향탐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파품질측정장비, 휴대용 전파 추적장비 등 첨단 조사장비를 탑재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다양한 전파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하는 CS기동팀이 1999년 2월 1일 발족되었다. CS기동팀의

발족은 전파관리가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사·단속 중심의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을 ‘전파행정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을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2003년도에는 전파민원 서비스 소외지역인 산간 도서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파관리 10대 이슈

‘전파지킴이의 날’ 제정 및 중앙전파관리소 CI 탄생

— 전파지킴이로써 역할 재정립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이 신설된 이후, 전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전파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1년 6월 1일 ‘제1회 전파지킴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전파관리소 CI를 제정하여 2001년 12월 21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즐거운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흥미로운 전파 체험



전파의 중요성과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전파의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2년 처음으로 개최한 ‘즐거운 어린이 전파교실’에서의 전파는 친근하고 흥미로우면서 즐거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런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전파의 중요성과 올바른 전파 이용을 체득하게 된다. 즐거운 어린이 전파교실이 해를 거듭하며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며,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은 중앙전파관리소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 5번째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 위성전파감시 시대로의 진입



감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파 관련 국제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회의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등 우리

2002년 6월 11일 위성 전파감시센터의 건립은 우리나라가 전파관리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설립을 기점으로 2002년 10월 제5차 국제우주전파

나라 전파관리의 위상을 외국에 드높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후발 국가들에게는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관련 기술의 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불법감청설비 조사업무 개시

— 전파에 의한 사생활 침해 이젠 그만



전파기술 발전의 어두운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법감청설비일 것이다. 전파기술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논란거리를 만들어 낸 불법감청설비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는 적극적인 조사 단속 뿐 아니라 불법감청설비 상담·신고센터 개설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불법복제 휴대폰에 대한 감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6년 3월 15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공항·국제우편세관·대형 전자유통상가에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불법감청설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상주근무제를 도입·운영하는 등 불법감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파관리 10대 이슈

주파수이용 현황조사업무 개시

— 선진 주파수 정책을 위한 기반 마련



주파수이용 현황조사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변화된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무이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된 '사용실적에 따른 주파수 분배·재조정' 제

도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주파수이용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규 할당이나 수요 증가가 예상되거나 정책적 이슈가 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는 국가의 정책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2001

년부터 3년 간 지방전파관리소를 대상으로 전파스펙트럼관리 시스템 1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2004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구축 착수

— 선진화된 감시시스템으로 새로운 시대 개막

종합전파감시망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인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은 새로운 전파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주파수이용 현황조사 등과 같은 전파이용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전파 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 요소로, 전파감시 기능의 강화와 신속한 전파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변하는 전파환경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전파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1999년부터 3년 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정방향탐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선진국에 의존하던 전파관리설비와 관련기술 국산화의 기폭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5

한·중·일 전파감시 협력체계 마련

— 동아시아 국제전파협력체계 완성



2003년 12월 1일 한국과 중국이 50년 만에 전파 관련 공식 협력관계를 체결하면서 한·중 간의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4년 9월 14일에는 그간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던 일본과 공식

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2005년 11월 21일 처음으로 한·중·일 전파감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특히 첫 번째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국제 교류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공적인 워크숍 개최로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갖기로 결정되었다.



2005

전파관리 조직개편 단행

— 전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중앙전파관리소는 2006년 12월 30일 급변하는 전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본소 일반전파감시(전파관리과)와 특별전파감시(전파운용과) 업무를 통합하여 '전파관리과'로 개편하고, 최근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전파 설비 조사단속·전파환경조사·전파이용 촉진활동 등을 담당하는 '전파보호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전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속관서의 명칭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분소에서 「○○전파관리소」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2007년 5월 1일부터는 지방전파관리소의 전파관리과가 전파업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용지원과를 전파운용과로 통합하는 한편 울산전파관리소에 전파업무과와 전파조사과를 신설하여 전파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6

